

해외 건축정책 동향

덴마크 건축정책(2007)

김영현(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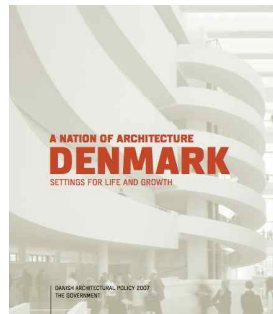
덴마크는 1994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시작으로 1996년도에 제2차, 2007년도에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덴마크 건축정책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건축정책은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서문과 주요 건축정책 10대 목표영역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본문, 관련 추진기관별 역할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덴마크 건축정책의 10대 목표 및 주요 내용은 건축물 품질 확보에 관한 사안이 주를 이루며, 건축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해야 할 사항, 건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덴마크는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선진 건축국가이기에 높은 수준의 건축산업 및 교육수준 유지·강화에 대한 내용이 두드러지며, 건축산업 및 기술 수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역시 잘 정리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덴마크의 10대 건축정책 목표와 세부적인 실천과제들을 살펴보고, 국내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책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책내용 구성

덴마크 건축정책에서는 국가의 건축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개별 건축물뿐만이 아닌 국토차원에서의 광범위한 접근과 고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덴마크가 우수한 품질의 건축적 자산을 보유한 국가임을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복지국가 발전에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개별 주택에서 국토계획, 교육 및 글로벌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각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접근을 시도한 덴마크 건축정책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건축정책에 참여하는 주요 부처

문화부(ministries of Culture), 경제부(Economic and Business Affairs), 사회부(Social Affairs), 외교부(Foreign Affairs), 환경·교통부(Environent and Transport) 에너지부(Energy), 덴마크 대학 자산관리청(Danish University and Property Agency), 덴마크 국방 자산 및 인프라 관리 조직(Danish Defence Estates and Infrastructure Organisation), 덴마크 왕실 자산관리청(Palaces and Property Agency) 등 다양한 부처가 건축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건축정책의 비전 및 10대 목표

덴마크 건축정책 비전

덴마크 제3차 건축정책의 비전은 크게 2가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우수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의 품질을 향상하자는 것이다.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함으로써 삶을 보다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두 번째로는 건축산업을 덴마크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써 육성하기 위해 건축디자인 및 시공에 관한 혁신적인 연구지원 및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국제시장에서 덴마크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것을 정책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목표

건축정책 비전 실현을 위해 아래와 같은 10대 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별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①공공시설의 디자인 품질 확보, ②건축품질에 대한 민간부문의 수요 확보, ③건축품질과 효율적인 시공방식 확보, ④건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건축물 공급, ⑤정부보조주택의 건축 품질 확보, ⑥도시계획에서의 건축품질에 대한 우선순위 보장, ⑦건축유산의 보존 및 개발, ⑧해외 건축수출을 위한 여건 조성, ⑨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⑩건축관련 연구의 수준 확보

▶ 주요 계획내용

① 공공시설의 디자인 품질 확보

공공건축물은 도시이미지, 시민 삶의 질에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로써 우수한 품질의 공공건축물 조성,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건축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건축을 비롯한 각종 플랜트, 고속도로, 교량 등 다양한 공공구조물에 대해서도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 주요 공공시설 발주기관에서의 건축 품질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련기관의 역할 강조

※ 덴마크 대학 자산관리청(Danish University and Property Agency), 덴마크 국방 자산 및 인프라 관리 조직(Danish Defence Estates and Infrastructure Organisation), 덴마크 왕실 자산관리청(Palaces and Property Agency)별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개별 건축정책 수립

- 기능성에 초점을 둔 교육 및 연구시설, 국방시설의 건축품질 향상을 위해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통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양한 용도로 재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
- 자산관리청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 이용자 수요, 건물의 전생애주기, 보존 가치 등의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활용도 제고

- 공공부문에서의 투입비용 대비 품질요구에 대한 수준 향상

- 2007년 공공사업의 비용대비 품질확보를 목표로 ‘건설정책 실행계획’ 수립(경제부 주관)
- 비용대비 향상된 건축품질 또는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분야의 건설 효율성 제고

- 정부 턴키계약에 의한 건축물 품질 확보

- 턴키계약의 품질기준, 적용범위 및 비용기준 등에 대한 개선

- 건축정책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교류 확대

- 덴마크 건축센터(Danish Architecture Centre, DAC)를 중심으로 건축 및 건설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네트워크 및 코디네이팅 역할을 수행하며, 매년 건축정책에 대한 컨퍼런스 개최 및 관련 부처건축정책 동향을 분석한 연차보고서 발간·배포

- 지역건축정책 수립에 대한 컨설팅 지원

- 덴마크 건축센터 DAC는 지역 건축사회, 건축가협회 등과 연계하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건축정책에 대한 컨설팅 제공(지역건축정책 템플릿 구축)

- 문화부 주관으로 매년 지역에서 건축품질을 도모한 사업에 대해 시상하는 제도 운영 예정

② 건축품질에 대한 민간부문의 수요 확보

덴마크 건축물의 92%는 민간소유로 국가 전체의 건축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 개별 주택의 증·개축 시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의 건축정책만으로는 민간부문의 건축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민간업체간 디자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건축물 이용자인 시민의 인식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수준높은 품질의 건축을 요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축의 문화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각종 전시, 교육, 가이드투어, 세미나 등을 통한 인식 확산

- 덴마크 건축센터 DAC 주관으로 국제 건축전시 기획·운영, 중요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지역 시민대상의 기초건축교육 확대

- 덴마크 경관의 주요요소인 단독주택에 대한 디자인 선도사례 발굴 및 카탈로그 제작·배포를 통한 홍보

- 기초적인 기술기준에서 기능과 품질 요건을 추가한 건축기준 고도화

③ 건축품질과 효율적인 시공방식 확보

새로운 시공기술은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본 전제조건으로써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공기술에 대한 발전이 필수조건이다. 건설자재 및 시공기법의 혁신은 건축에 있어서 창의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3D 디자인 툴 개발로 인해 과거에 수행하기 어려웠던 기하학적인 복잡한 설계가 가능하게 하는 등 건축 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 공공주택 및 공공건축사업 부문의 시공품질 제고를 위해 모든 사업 프로세스에서의 디지털화

- 건축 및 건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설계기준의 글로벌스탠다드화

- 건축설계 신기술 및 디지털 툴에 대한 지식 보급

- 건축 및 건설부문의 디자인화는 건축센터 DAC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대규모 전시 및 워크숍 운영

- 건축 전문교육에서 디지털 툴에 대한 교육 강화

- 대학 건축전공 학생, 건축교육 기관을 비롯한 기존 건축가들의 디지털 디자인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전개

- 공공사업 입찰 시 건축물에 대한 연간 유지비용 산정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전생애주기 비용에 대한 고려 강화

- 건설자재 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체계 구축

- 건축 품질 향상을 좌우하는 요소로써 건축자재에 대한 혁신과 개발은 필수적이며, 건설자재 산업에 건축관련 전문인력을 일정비율 고용하도록 유도

④ 건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건축물 공급

우수한 품질의 건축은 심미적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 접근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건강한 실내 환경은 적정 자재 선택을 통해 조성될 수 있으며, 건축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고려되어야 한다. 건강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은 이용자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환경성 질병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며,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민건강 증진에 건축가의 역할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외부 도움 없이 복지시설에 접근이 용이하고, 복지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천연자원 소모, 건축폐기물 최소화에 신경써야 하며,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건물 내 습기 감소를 위한 새로운 건축기준 마련

- 2007년도에 국가기업 및 시공위원회(National Agency for Enterprise and Construction)는 새로운 BR07 기준을 발표하여 건물과 자재의 최대 습기 수치가 시공문서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규정

- 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 확대 및 사업 운영

- 덴마크 문화스포츠 시설 재단(Danish Foundation for Culture and Sport Facilities)을 중심으로 문화·체육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개선 및 적용 확대사업 추진

- 기존 건축물의 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금 운영

- 신축시설의 경우 현재의 건축기준에 의해 무장애 유니버설디자인이 보장되고 있으나 기존 시설의 경

우 개선 여지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기존 공공시설 개선을 위해 2년간 DKK 3,000만(한화 약 56억원) 지원 예정

- 건축물 에너지 관련 기준 강화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25~30% 절감 기준 강화

- 대규모 시설 개축, 지붕, 창문, 보일러 등에 대한 에너지 기준 개선, 에너지 라벨링(Energy Labelling), 보일러 및 환기시스템 검열 등의 내용을 담은 기준

- 친환경 건축물 ‘스완라벨 빌딩’ 제도 도입(Swan-labelled building)

- 지역 도시계획에 저에너지 설계 유도

- 환경부 주관으로 저에너지 개발에 초점을 둔 국토계획법(Planning Act)을 개정하여 지역 내 신개발단지에 저에너지 건축물을 요구 및 유도하는 지역계획 조항 추가

⑤ 정부임대주택의 건축 품질 확보

1960-80년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임대주택은 대규모 공급을 위해 상대적으로 디자인이 저급한 양상이 두드러졌으나 최근 사회주택법(Consolidation Act on Social Housing), 도시재개발 및 개발법(Act on Urban Renewal and Urban Development)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건축 디자인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다.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 덴마크 도시재개발법(Danish Urban Renewal Act)에 따라 임대주택 개발 및 도시재개발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매년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에 의해 신규 사업 추진

- 시범사업 테마는 건축의 기술적, 기능적,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시설 접근성, 에너지 효율 및 실내환경 개선 사업 추진

- 주거환경 취약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 조사

- 주거취약지구에 대해 해외사례 경험을 기반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 촉진

- 덴마크 건축가협회 주관, 관련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추진

- 주거취약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의 참고자료 및 역량강화를 위해 조사 실시

- 도시 재개발 관련 교육 강화

- 오르후스(Aarhus) 건축학교는 덴마크 사회부 지원을 통해 신규 대학원 과정을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건물 파손, 시민 참여, 노후시설 스톱에 대한 건축교육 실시

⑥ 도시계획에서의 건축품질에 대한 우선순위 보장

도시계획은 대규모 건축행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시민 일상생활의 질, 건축품질에 대해 결정적인 여건을 만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 자연, 인프라간 상호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은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을 조성하는 기본요건으로 건축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도시계획의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

- 레알다니아(Realdania) 재단과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는 지자체 구조 개편 이후 도시계획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2006-09년 3년 간 ‘Plan 09’ 프로젝트 추진

- 근린단위 환경 및 항구지역에 대한 컨설팅 운영

- 쇠퇴해 가는 항구도시의 재생은 새로운 도시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로서 수변 접근성 확보 및 문화·여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덴마크 문화스포츠 시설 재단(Danish Foundation for Culture and Sport Facilities) 주체로 관련 지자체에 도시계획 컨설팅 제공

- 조경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시(New guidelines for landscape planning)

-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경계획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조경계획의 새로운 방법(the landscape grading method) 및 톨 제공

- 랜드마크로서의 풍력 발전기

- 2007년 3월 정부는 지상 풍력 발전기 계획 위원회(Committee on Land-based Wind Energy Planning)의 보고서를 승인

*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인 대규모 풍력 발전기를 필요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

- 대규모 풍력 발전기를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어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모전 기획·추진

⑦ 건축유산의 보존 및 개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다양한 덴마크 건축물 및 구조물은 국가전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개별 건축물은 덴마크의 문화적, 경제적으로 소중한 국가자산이다. 따라서 정부의 문화유산 보존정책과 건축정책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건축물에 대한 개조 또는 증축 시 원래 구조의 건축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문화유산위원회(National Cultureal Heritage Agency)에서 매년 건축 전문가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 국가문화유산위원회에서 역사건축물의 개조 및 증축 허가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건축 전문인력이 역사건축물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

- 건축문화유산 복원을 위한 예산 확보

- 매너 하우스라 하여 옛 영주의 저택에 대한 건축적, 역사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며,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간 DKK 600만 예산(한화 약 11억 2천만원) 확보

- 건축물 보존에 대한 평가

- 문화부 장관은 덴마크 건축물 보존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물의 사회적, 기술적, 행정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자체 대상 추가적인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지원금의 규모 결정

- 지역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DB구축 및 지도 제작

- 국가문화유산위원회 주관으로 총 400,000동 이상의 건축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서비스하며, 최근 덴마크 내 주요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지도 발간

- 문화유산 지도에 건물, 도시 및 문화적 지형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포함시킴으로서 문화적 유산의 개념을 개별 건물로 국한시키는 것을 방지

- 건축문화유산 보존 관련 교육 강화

- 건축물 복원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건축복원 분야에 대한 새로운 건축산업 및 인력 육성이 중요함을 강조

⑧ 해외 건축수출을 위한 여건 조성

덴마크 경제는 점차 지식서비스, 디자인산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질 전망으로 건축분야는 덴마크

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큰 역할 수행을 기대하는 분야이다. 그간 덴마크 내 건축사사무소들은 폭 넓은 해외시장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우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대규모 건축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건축산업의 해외수출 잠재력은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에 해외 수출 여건 조성을 통해 덴마크 건축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국제적인 전시 기획

- 덴마크 건축 및 디자인 홍보를 위해 DAC와 덴마크 디자인센터(Danish Design Centre)는 2007-2010년 간 국제적으로 투어(travelling exhibit)하는 전시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있으며 동시에 덴마크 건축 기업들의 홍보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활용
- 덴마크는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에 참가하는 국가로 최근 2차례의 비엔날레에서 시상한 바 있으며, 비엔날레는 덴마크 건축 및 건설 수준을 홍보하는 중요한 기회 제공
- 덴마크 건축센터 DAC는 국제 건축 비엔날레 및 전시를 벤치마킹하고 건축 전시를 지원하며 수출 홍보하는 역할 수행

• 외교부 무역위원회 주관으로 덴마크 건축산업의 해외진출 전략 마련

-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는 덴마크 건축 산업 홍보를 위한 공동 캠페인 지원
- 외교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BornCreative’ 프로그램에 건축 및 시공 기술 수출 관련 컨설턴트를 포함하여 운영
- * 컨설턴트의 역할은 고용인 50인, 수익 DKK 5,000만 미만(한화 약 93억원) 덴마크 중소기업 건축 사무실들이 국제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제시장과의 교류 및 홍보 확대

- 덴마크 건축센터 DAC는 2006년 북경 건축 비엔날레 이후 중국과의 교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신진건축가 간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
- 덴마크 건축, 디자인, 공예를 홍보하기 위해 DAC, 덴마크 디자인 센터, 덴마크 공예(Danish Crafts)에 의해 ‘Danish Edge’ 라는 영문포털 및 소식지 제작

• 외국 건축 전문인력의 취업기회 보장

- 해외 건축가의 고용은 새로운 지식 축적과 전문인력 및 상업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 가능

- 덴마크 건축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해외 건축인력의 유연한 고용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건축분야는 ‘job card’ 프로그램에 의해 외국인들의 즉각적인 취업 및 거주 허가가 가능한 고용 분야로 지정

⑨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덴마크 건축산업의 활력 및 혁신을 위해 신진건축가들의 재능과 지식,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덴마크의 경우도 우리나라 턴키 발주제도의 문제와 유사하게 특정 대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만 운영되는 지명경기(closed competitions)가 증가되어 공개 공모전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

* 덴마크 건축가 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클로즈드 컴피티션 운영은 증가한 반면 공개 공모전은 지난 5년 간 감소세를 보이는 추세

• 와일드 카드 프로그램 운영(New wild card scheme)

- DAC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시장 접근성을 고려한 공모전 참가 촉진 관련 가이드라인 보급 등의 정보 캠페인 운영
- 국제적으로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한 플랫폼으로 유명한 유로판(Europan)에 참여 유도
- * 유로판(EUROPAN)은 40세 미만 유럽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건축 및 도시계획 공모전임

• 신진건축가를 위한 여행 보조금 지원

- 건축교육 졸업자 또는 젊은 건축가들의 국제 및 기업적 전문성 강화 지원을 위해 여행 보조금 지급
- * 여행 목적은 전문성과 관련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덴마크 건축 마케팅의 지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되고, 문화부 디자인 보조금 지급 사업실행 일환으로서 특히 중국과 뉴욕에 초점을 두고 있음

⑩ 건축관련 연구의 수준 확보

덴마크만의 독특한 건축양식과 도시이미지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건축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의 건축교육은 타 국가에서의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또는 기술에 초점을 둔 교육이 아

년 문화예술에 기반을 한 덴마크식 건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건축학교 내 자문이사회 설치를 통한 실무와의 협력 구축
 - 건축실무와 교육 및 연구분야 간 지속적인 발전 및 협력 도모를 위해 건축분야의 선도적 기업 또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건축가들을 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건축교육에서의 실무적인 자문 수행
 - 건축교육 기관에 비즈니스 박사과정을 설립하여 산·학 연계 증진
- 건축교육의 국제교류 확대
 - 덴마크 건축교육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교육 기관들과 전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교육자, 학자 간 국제적 교류 증진
 - 해외 교수, 교환 학생 유치를 위해 영어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증진

정책 관련 정부부처 및 조직, 기관

덴마크 건축센터(Danish Architecture Centre, DAC) 문화부, 경제부와 함께 레알다니아 재단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건축의 문화적·상업적 가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건축 관련 전문적인 연구 이외에 일반 대중을 위한 다양한 전시, 회의, 컨퍼런스, 교육, 서비스, 웹 서비스를 하고 있다.

* 레알다니아 재단은 2005년 DKK 210만(한화 약 4억 원)에서 2007년 연간 DKK 1,240만(한화 약 23억 원)의 예산 지원

덴마크 예술재단(Danish Arts Foundation) 덴마크 예술재단에 소속된 건축위원회(Committee for Architecture)는 건축산업 진흥을 위해 3년간 장학금, 취업 및 여행 보조금, 시상보조금 등을 운영하며 매년 DKK 750만(한화 약 1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 문화스포츠 시설 재단(Danish Foundation for Culture and Sport Facilities) 1994년에 설립된 덴마크 문화스포츠 시설 재단은 스포츠, 문화, 여가 분야의 사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스포츠 및 문화시설에 대한 계획수립과정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축 품질 개선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에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공모전 운영, 발주업무 수행 등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덴마크 문화스포츠 시설 재단은 국립복권기관인 'Danske Spil'로부터 매년 DKK 8,000만(한화 약 150억원)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국가문화유산위원회(National Cultural Heritage Agency) 국가문화유산위원회의 목표는 건축, 선사시대 기념물, 박물관의 문화적 유산 가치를 보존 및 강화하는 것으로 특히 건축분야에서의 문화재 등록 및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건축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재로 등록된 시설의 복원, 개조 등은 국가문화유산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위원회 위원은 주로 건축시설 복원 경험이 풍부한 건축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